

한국농어촌공사 목포무안신안지사, 제3기 명예지사장 위촉식 성료

- 지역 농업 전문가 4인 선임…“농어민 의견 반영 강화” 박정만·문선웅·김기자·진선미, 농업 발전 앞장 정기 간담회로 협력 지속…지역사회 성장 목표

2025.03.24 17:52 입력



한국농어촌공사 목포무안신안지사(지사장 범필재)가 24일 지사에서 제3기 명예지사장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.

이번 행사는 지난 14일 지역 농어민단체와의 네트워크 강화 및 유관기관 협력 확대를 위해 선임된 4명의 명예지사장을 공식 위촉하는 자리였다.

제3기 명예지사장으로는 ▲한국후계농업경영인 무안군연합회 박정만 회장 ▲한국후계농업경영인 신안군연합회 문선웅 회장 ▲한국여성농업인 무안군연합회 김기자 회장 ▲한국여성농업인 신안군연합회 진선미 회장이 선정됐다. 이들은 지역 농업 발전에 헌신해온 전문가들로, 농어민의 목소리를 공사 운영에 반영하는 가교 역할을 맡는다.

수여식에서는 위촉장 전달과 함께 공사 발전 방향 및 지역 농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.

명예지사장들은 “목포무안신안지사가 올해 농어민 중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”며 의지를 다졌다. 범필재 지사장은 “명예지사장 제도를 통해 농업인과 더 가까이 소통하며, 현장 의견을 적극 수용해 공사와 농업인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고 화답하며 협력을 당부했다.

목포무안신안지사는 앞으로 명예지사장들과 정기 간담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농업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. 이번 위촉을 계기로 농업 현장의 실질적需求를 반영한 정책 추진이 기대된다.

손봉선 대기자 jeonmae5242@naver.com